

호남권 기업 지난해 법정관리·파산 110곳

조선·철강 등 구조조정 영향 중소기업체 대거 폐업 중 위안화 절하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폭...도산 늘 듯

■포스코의 계열사로 고순도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업체인 포스하이알(영암 삼호읍 소재)은 국내 수요 둔화로 경영난이 계속되자 지난해 12월 광주지방법원에 부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고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포스코 계열사의 파산은 1968년 회사 창립 이래 처음이다.

■전남 고흥장인 무등산컨트리클럽이 지난달 31일 광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무등산CC(화순 화순읍 소재)는 2008년 개장해 27층 150만㎡ 규모로, 회원제로 운영 중이다. 무등산CC를 운영하는 동광제게받은 골프

장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내장객 수가 줄어 경영난이 심화됐다.

28일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회생(법정관리) 및 파산 신청을 한 기업 중 광주와 전남·북에 사업장을 둔 업체는 11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감 폭에 차이는 있지만 2006년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법정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2014년은 회생 및 파산 신청 기업 수가 122곳이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광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 회생

신청'은 모두 92건이다. 같은 기간 양 지방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21건이었다.

이처럼 지난해 회생 및 파산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은 어려워진 경제 상황 때문이다.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이 부진한 데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조선과 철강 중소기업체들이 대거 문을 닫았다. 여기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내수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골프, 보석 등 고급·사치품 업체들의 도산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함께 위안화 절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면에서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도산하는 기업이 늘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는 기업개선택업(워크아웃)이 가능한 기업들도 법정관리를 택할 수밖에 없어 법원으로 가는 기업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경기 안 좋은 상황에서 특히 조선과 철강 관련업체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한 기업들 상황이 빠른 시일 내 좋아지긴 어려울 것이고 자금사정도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법원 파산부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아니라 법원이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할 경우 구조조정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은행은 최근 본점 2층 광주은행 금융박물관에서 광주 문흥지역아동센터 어린이 30명을 초청,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어린이들은 용돈관리용 전통지갑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과 함께 배우는 '금융'

직원들 재능기부...어린이 30명 금융박물관 초청 교육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26일, 본점 2층 광주은행 금융박물관으로 광주 문흥지역아동센터 어린이 30여명을 초청해 '금융을 부탁해'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네 번째로 실시한 '금융

을 부탁해' 금융교육은 광주은행 직원들이 직접 금융 교육을 기획하고, 지역의 학생들을 본점의 금융박물관으로 초청해 다양한 체험교육을 진행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 참여한 문흥지역아동센터는 광주은행 문화동지점과 자

매 결연을 맺어 광주은행 직원들의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미래의 금융활동 주체로 성장할 지역의 어린이 30여명은 설맛이 전통 놀이 체험, 용돈 관리용 전통 지갑 만들기, 금융 박물관 견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겨울방학에 직접 금융박물관에 와서 여러 가지 화폐의 변천사도 배우고, 책에서만 봤던 전통 놀이인 투호 던지기도 해보니 매우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무역협회 '스마트클라우드 IT마스터' 교육생 모집

한국무역협회는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과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클라우드 IT마스터(SC마스터)' 양성과정 제3기 교육생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취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인 SC마스터 과정 수료생은 최근 5년간 전일 취업에 성공했으며 이 중 해외 취업 비중은 92%에 이른다. 해외 취업은 '마이남버' 등 도입으로

IT시스템 개발 수요가 급증한 일본에서 주로 이뤄졌다. 참가 신청은 SC마스터 홈페이지(www.itmasters.org)를 통해 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무역협회 사이버연수실(02-6000-5968)이나 ICT교육센터(02-6000-5413/7139)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897.87 (+26.18)
- ↑ 금리 (국고채 3년) 1.60% (+0.01)
- ↓ 코스닥 675.25 (-3.60)
- ↓ 환율 (USD) 1202.00원 (-2.20)

기아차 3·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4분기 영업이익 2.8% ↑ "올 312만대 판매 목표"

기아차가 지난해 3분기에 이어 4분기도 전년과 비교해 플러스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실현했다.

연간 영업이익은 작년 상반기 수익성 악화로 인해 전년 대비 8.5% 감소한 2조 3543억원을 나타냈다.

기아차는 27일 오전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열린 2015년 경영실적 발표회에서 4분기에 매출 12조7917억원, 영업이익 5144억원, 당기순이익 430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4분기 영업이익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기아차는 19.6%의 영업이익(6775억원) 증가를 보인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플러스 영업이익 성장률을 달성했다.

기아차는 지난해 3분기에 출시된 신형 K5와 스포티지 등 신차와 RV 차종의 판매 호조가 하반기 판매실적을 견인하며 수익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5% 감소한 2조3543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49조5214억원으로 2014년과 비교해 5.1% 늘어났지만 1분기와 2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30.4%, 15.5%

5%로 급감한 탓에 전체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줄어 들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도 12.1% 감소한 2조 6306억원에 그쳤으며 영업이익률은 4.8%를 나타냈다. 기아차는 순이익 감소에도 주주 가치 향상을 위해 보통주 1주당 1100원의 현금배당을 하기로 했다. 작년에는 1000원을 배당했다. 올해 배당금 총액은 4410억2500만원으로, 순이익 대비 배당성율은 13.5%이다.

기아차는 올해도 유럽 등 선진 시장의 성장 둔화와 신흥국 시장의 침체로 업체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 신차 출시와 멕시코 공장 가동을 통해 실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아차는 지난 26일 준대형급 신차 K7을 출시한데 이어 상반기 중에 친환경 경주차 '니로'를 선보일 예정이다.

30만대 생산 규모로 건설 중인 기아차 멕시코 공장은 오는 5월 준중형급 K3의 양산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기아차는 올해 국내공장 163만대, 해외공장 149만대 등 전년 대비 2.3% 증가한 312만대 판매를 목표로 세웠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 이틀째 부분 파업

본교섭 견해차 여전...내달 15일 이후 무기한 부분파업

금호타이어 노조가 27일 이틀째 광주공장과 전남 곡성·경기 평택 공장에서 부분파업을 이어갔다.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지난 26일에 이어 이날도 각 근무조별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2015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해를 넘겨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이어왔으나 일사급 상향지급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게 품질향상격려금 명목으로 일사급 지급 규모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일사급은 임금 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올리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노사는 부분파업중에도 교섭은 계속하기로 했지만 본교섭에서도 쟁점 사항

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다음달 초 회사 임원인사 등과 맞물려 실현이 지연 교섭 재개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노조는 다음달 15일 이후부터 무기한 매일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파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 근무조·대체 인력 투입 등에 나서고 있지만 부분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매출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해 8월 11일~14일 부분파업에 이어 8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최장기 전면파업을 벌였다. 또 지난해 12월 17일~18일 2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출업 (공공기관 다년제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 혼		추천 회원		재 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65세
편사, 감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59세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63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구 7면 70m 최신편 B1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기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턴: 방수시트, 방수시트, 방수시트, 방수시트, 방수시트

홈페이지 방문하시면(이메일, 팩스, 카탈로그) 다양한 이쁠다온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